산업통상자원부	**보도참고자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6. 2(토)	담당부서	구주통상과 다자통상협력과 세계무역기구과
담당과장	박성준 과장(044-203-5660) 양기욱 과장(044-203-5930) 박성진 과장(044-203-5920)	담 당 자	김수진 사무관(044-203-5661) 김예환 사무관(044-203-5934) 민현지 사무관(044-203-5922)

통상교섭본부장, 유럽 방문 결과

- EU 철강 세이프가드 대응 위한 선제적 아웃리치 전개 -

-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다자통상규범의 개선 제안 -

□ **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**은 5. 28.(월)~6. 1.(금)간 유럽을 방문해, 유럽연합과(EU), **주요 유럽연합 회원국**을 대상으로 **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** 조사에 대한 **현장 지원활동(아웃리치)** 활동을 전개했다.

□ 또한, 5. 31.(목)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한 **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각료이사회 무역투자 분과와 세계무역기구(WTO) 통상장관회의**에 수석대표로 참석해 **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국제 공조 강화**와 **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체제 개선**을 제안했다.

1 유럽연합(EU)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 현장지원 활동(아웃리치)

□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유럽연합(EU) **집행위원회, 독일 경제에너지부, 폴란드 기업기술부, 체코 산업통상부** 장관급 면담을 통해 유럽연합(EU) 집행위원회가 진행중인 철강 긴급수입제한조치(세이프가드) 조사 관련 현장지원 활동(아웃리치)을 집중 전개했다.

EU의 철강제품 세이프가드 조사개시

○ **(조사대상)** 철강재 품목 26개군 총 283개 품목

○ **(조사배경)** 철강 공급과잉과 보호무역조치로 인해 '13~'17년 조사대상 철강재 수입이 1,780만 톤→2,930만 톤으로 증가, 미 232조치로 인한 전환 우려

○ **(주요경과)** 3.26 조사개시, 4.16 의견서 접수(한국 정부의견서는 4.13 제출)

○ **(향후일정)** 조사개시일(3.26)로부터 9개월 이내 결정(필요시 2개월 연장)

* 면담자
  - EU집행위 세실리아 말스트롬(Cecilia Malmström) 통상 집행위원(6.1)
  - 독일 경제에너지부 울리히 누스바움(Ulrich Nussbaum) 사무차관(5.29)
  - 폴란드 예드비가 에밀라비치(Jadwiga Emilewicz) 기업기술부 장관(5.28)
  - 체코 산업통상부 토마스 흐네르(Tomas Huner) 장관(5.30)

○ 김 본부장은 유럽연합(EU)의 세이프가드 조사가 세계무역기구(WTO) 협정상의 요건*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과 실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경우 유럽연합(EU) **내 연관 산업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**시킬 것이라는 강력한 우려를 전달했다.

* 세이프가드 발동요건 : ①수입증가, ②산업의 심각한 피해, ③수입증가와 피해 간 인과관계, ④예상치못한 상황의 발전(unforeseen development) 등

○ 특히, **한국산 철강**의 경우 대미 수출 주력품목(강관류)과 대 유럽연합(EU) 수출 주력품목(판재류)이 달라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 시행으로 인한 **수출 전환 가능성이 희박**하고, 우리 기업들이 현지 생산 공장 등을 통해 **고용 창출과 산업 발전에 이바지**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.

* 우리 기업의 EU 내 주요 투자 현황(국가, 고용) : 현대차(체코, 3.3천명), 기아차(슬로바키아, 3.8천명), 삼성전자(폴란드, 4천명), LG전자(폴란드, 2.8천명)

□ 한편, 김현종 본부장은 5. 30.(수) 체코 현지에서 **철강 관련 우리 기업 간담회**를 통해 업계 우려사항을 직접 청취하고, 철강 세이프가드 등 급증하는 보호무역조치에 **민관이 합동하여 대응**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.

* 참석 기업 현황 : 현대제철, 현대자동차, 코스와이어

② 경제개발협력기구(OECD) 각료이사회 계기 무역투자 세션 참석

□ 이번 경제개발협력기구(OECD) 각료이사회에서는 **'보다 책임감 있고, 효과적이며 포용적인 성과를 위한 다자주의의 토대 개선(Reshaping the foundation of multilateralism for more responsible, effective and inclusive outcomes)'**을 주제로 세계화의 혜택을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인 경제성장의 달성 방안에 대해 회원국간 논의했다.

○ 김현종 본부장은 5. 31. **무역·투자 세션**에 참석해 세계무역기구(OECD) 통상장관과 위기에 처한 다자무역체제를 재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.

-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따라 **전통적 무역에서 디지털 무역으로 획기적 전환**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, 다자무역체제가 변화된 현실에 맞게 제대로 기능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**디지털 무역 시대에 걸맞은 다자무역체제의 개선**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.

○ 특히, 세계무역기구(OECD)가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통해 디지털 무역 규범마련에 기여하고, 기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**국가 간 규제조화, 기술표준, 상호인정 등**의 문제를 함께 다루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. 또한,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이 **이러한 지침을 이행하고 확산**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.

○ 아울러, 김 본부장은 한국이 **디지털무역 분야의 신통상규범 마련을 위해 관심국가들과 적극 협력**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하면서, **디지털 무역이 다자무역체제 개선의 새로운 촉매가 되길 기대**한다고 말했다.

3 세계무역기구(WTO) 통상장관회의

□ 김현종 본부장은 경제개발협력기구(OECD)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개최된 **세계무역기구(WTO) 통상장관회의**에도 참석해, 미국, 유럽연합(EU), 일본, 인도 등 주요국 장관들과 **세계무역기구**가 직면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.

□ 이 자리에서 김 본부장은 최근 하나의 **일방적 보호무역조치**가 또 다른 보호무역조치들로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인해 세계무역기구(WTO) **다자무역체제의 근간**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하며,

○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를 통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인 **분쟁해결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**되도록 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(WTO) 상소기구의 공석*을 조속히 충원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.

* 현재 총 7명의 상소기구 위원 中 3명이 공석이나, 신규 위원 선발 절차 지연 중

○ 한국 이외에도 유럽연합(EU), 캐나다, 중국, 브라질, 멕시코 등 대부분 국가가 상소기구 공석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를 같이 했다.

□ 또한, 김 본부장은 세계무역기구가 인공지능(AI), 사물인터넷(IoT) 등 **4차 산업혁명에 따른 무역패턴 변화**에 걸맞게 **디지털 무역 관련 규범을 마련**해야 함을 강조했다.

□ 한편, 김 본부장은 동 계기 **호주** 외교통상부 통상장관, **캐나다** 국제무역부 장관과의 양자 면담을 통해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대응방안과 디지털 통상 등 새로운 무역규범에 대해 논의했다.

* 면담자 : 호주 Steven Ciobo 외교통상부 통상장관, 캐나다 François-Philippe Champagne 국제무역부 장관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구주통상과 김수진 사무관(☎ 044-203-5661), 다자통상협력과 김예환 사무관(☎ 044-203-5934), WTO과 민현지 사무관(☎ 044-203-592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